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음 11월 9일) 제19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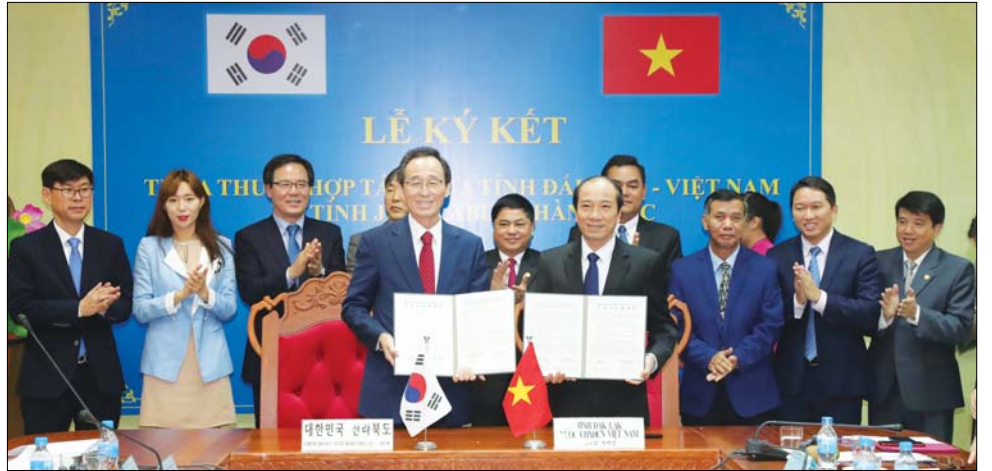
## 전주 첫마중길이 '빛난다'

시, 수목 휴면기 맞아 LED 조명 활용 '빛의 거리' 탈바꿈 내년 3월 초까지 시민들에 아름다운 야경·불거리 제공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된 첫마중길이 겨울내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빛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관련사진 4면> 전주시는 나무들의 생육 휴면기인 겨울철을 맞아 전주 첫마중길을 LED 조명과 스노우볼 조명으로 꾸민 빛의 거리로 조성하고, 지난 22일 첫마중길에서 '첫마중길 빛의 거리 점등식'을 가졌다. 첫마중길 빛의 거리는 나무가 움트기 전인 내년 3월 초순까지 운영되며,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850m에 달하는 첫마중길 광장 내 느티나무 150주와 상징교목 2주에 LED 조명을 이용해 트리조명을 설치했다. 또, 각 구간마다 빛의

터널과 곱돌이 조명, 별자리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버스킹 공연과 소원등 달이주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겨울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특히, 소원등 설치 이벤트의 경우, 가족과 친구, 회사직원 등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2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약 500명 정도 선착순 접수를 받아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한지소원등을 첫마중길에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대로를 사람과 생태, 문화의 가치를 담아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전주의 대표관문이자 매력 있는 첫인상으로 비웠다. /김민근 기자

또, 기존 자동차로 가득해 삭막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는 기존 8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줄어들고, 직선도로도 S자형 곡선도로로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인 안전한 도로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시는 첫마중길 조성사업 우수사례로 '2017년 아시아 경관대상' 그라프티(대상)와 함께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첫 마중길은 자동차 보다는 사람, 콘크리트 보다는 생태, 직선 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전주의 상징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무가 휴면기에 접어들어 황망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LED 조명을 활용한 빛의 거리가 조성되면 야간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역 주변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가 있어 사람이 모이는 명품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와 덕락성간 우호협약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22일 덕락성 인민위원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팜 응옥 응이(Pham Ngoc Nghi)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전북도-덕락성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며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 새만금 전북-기회의 땅 덕락성 '손 잡다'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 상생발전 협약 체결

베트남 덕락성을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2일 전북도-덕락성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며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을 품고 있는 전북도와 개발이 본격화되며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중부지역의 덕락성은 앞으로 문화교류는 물론 농축산 분야, 대학간 교류, 민간교류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통해 날날이 밝아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폐교명령)'를 통보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호 분위기와 함께 전북도와 덕락성이 훌륭한 협력동반자자 될 것이며, 양 지역이 인구, 산업구조 등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상호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교류의 모델로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팜 응옥 응이(Pham Ngoc Nghi)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도와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전북대학교 농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가 참여한 실무진 회의에서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축산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분야에 대해 교류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덕락성 축산 농가 현장과 다이오엔 농림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양 지역의 협력방안 모색을 추진했다. 대학간 교류에서는 전북대학교,

(사)착한벗들, 덕락성 다이오엔대학 및 고등학교의 주요 관계자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만간 현지 한국어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졌다. 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제작한 한국어 교재도 증명하며 향후 도내 유학생 유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덕락성 HOANG LOC(황록)에서 열린 우호교류 기념공연에서는 전북도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등이 참석하여 남도아리랑, 태평무, 베트남민요(나의고향), 모듬북 협주곡 등 한국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여 덕락성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300여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다. 덕락성의 공연단도 베트남 전통공연을 보여주며 양 지역의 전통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화려한 문화교류의 첫 출발을 알렸다. /김진성 기자

## "폐교명령 처분에 대한 교육부 청문회 진행해야"

서남대 구성원들 국회에 요구 "교육부 사립대 제도과 수준서 정상화 계획서 모두 반려 심의 받을 기회조차 박탈"

교육부가 내린 학교폐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소재) 구성원들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서남대 구성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교육부의 폐교명령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교육부의 행동들을 보면 처음부터 정상화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이 '폐쇄되고 해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정해둔 것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며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들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학교를 폐교로 몰고 가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 수준서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반려함으로써 서남학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상화 계획서를 심의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는 서남대 구성원들에게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고 토로했다.

또 "폐교명령은 교육부의 인위적인 정상화 정책보다는 종전이사에게 학교의 자산을 넘겨주려는 사학비리 옹호 정책에 의해 1800여명의 학생들과 200여명의 교직원의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의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외기관인 국회는 이 잘못된 악습과 폐단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날날이 밝아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폐교명령)'를 통보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도 "지역출신 인재 중앙무대 진출을 최대성과"

전북도가 전북 룩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로 진입한 것을 올해 최대 성과로 꼽았다. 지난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출신 인재가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등 올해 동안 이뤄진 도정 주요 성과(20대 뉴스)를 내세웠다.

주요 성과를 보면 새 정부 들어 장·차관 및 청와대 수석 등 19명의 도내 출신이 임명됐다. 또 새만금 사업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국립지덕권산립치유원 등 장기가 표류했던 국가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또 2018년 정부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고, 2023 세계잡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시법적으로 운영됐던 전북투어패스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고,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전당원 투표 금지 가져분 신청    6면 - 내년 중기 R&D에 1조 지원    16면 - 올 한해 장수군정 결산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인구)

후원금 사용내역	01	02	03	04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해외 구호활동
02	4,079,359,901	03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